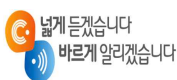
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배포시	배포일시	2021. 10. 18.(월) 09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 (044-215-7610)	담당자	정미현 서기관 (jjmh0415@korea.kr) 박재현 사무관 (parkjae86@korea.kr)
	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장 정광조 (044-215-7670)		홍가영 사무관 (hongga0@korea.kr) 김교중 사무관 (gyojungk@korea.kr)

제1차 「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」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

- **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.18.(월) 07:30**
정부서울청사에서 「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」를
개최하였다.
 - * 참석자 : 경제부총리(주재), 과기부·외교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해수부 장관,
국조실장, 국정원 1차장, 통상교섭본부장, 특허청장, 국가안보실 2차장,
경제수석, 경제보좌관, 과기보좌관
 - 同회의체는 경제·기술·안보 등이 연계·통합된 글로벌
현안 이슈에 대해 치밀하게 점검·대응하기 위해 지난
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(21.9.27.) 의결을 통해 신설되어
오늘 첫 공식회의를 개최하였다.
- 이번 회의에서는 ①美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
및 향후 대응방향, ②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 기술
육성·보호 전략, ③CPTPP 가입문제 관련 논의동향 및
향후 대응방향을 점검하였다.

- **[반도체]** 美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 관련, 美측 입장과 국내외 업계 및 주요국 동향을 점검하고, 정부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① (양국 정부간 협의) 우리 정부는 韓美간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同이슈와 관련 긴밀히 협의해왔다.
 - 우리 기업들의 우려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美측에 既전달하였으며, 앞으로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.
- ② (우리기업 지원) 정부는 주요국·관련업계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하여 적시성 있는 대응을 지원하고,
 - 정보제출 기한(11.8일) 이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**[기술경쟁下 대응전략]** 최근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기술의 확보·보호가 우리 대외경제안보의 핵심이슈로 부각됨에 따라,
 -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블록화에 대비한 핵심적인 기술 확보 방안, 기술·인력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안전망 구축 방안, 국제공조 및 전략적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.
- **[CPTPP 가입]**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①CPTPP 가입의 경제적·전략적 가치, ②국내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요인을 폭넓게 짚어보고,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향후 대응 및 추진일정에 대해 관계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였다.

※ (붙임) 부총리 모두발언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- 지금부터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시작

< 글로벌이슈 논의 및 전략적 대응 >

- **글로벌 경제**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및 백신접종 확산 노력 속에 **회복세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국가간 불균등 회복(격차), 글로벌 공급망 교란, 공급쇼크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**되는 양상*

* 지난 주 워싱턴 D.C.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총회(IMFC)에서도 같은 인식과 지적을 공유

- 특히 ①글로벌 이슈가 통상·투자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**기술패권 경쟁, 글로벌 공급망 재편, 기후대응 등 환경이슈** 나아가 **인권문제까지 복합되는 고차 방정식 모습**을 띠면서 그 어느 때보다 **다면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**이 매우 긴요
- 아울러 ②이러한 이슈들이 단순히 경제영역 사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**경제와 안보가 동전 양면처럼 밀접히 결합된 사안**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**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안보적 관점이 함께 고려된 국가적 차원에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** 필요성이 점증
- ☞ 이에 이러한 성격의 대외경제 복합이슈에 대해 **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**을 통해 “국익의 극대화”를 도모해 나갈 필요

<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 및 첫회의 논의 >

-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, 정부는 지난 9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시 同회의 산하에 **별도의 장관급협의체로 “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”를 신설**키로 의결한 바 있으며 오늘 그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임
- 동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**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5명 + 국정원/NSC/청와대(수석)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**하되, 안건에 따라 필요시 **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**
- 오늘 1차 회의에서는
 - ①美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
 - ②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 기술 육성·보호전략
 - ③CPTPP 가입문제 관련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 3건을 상정·논의

□ 첫 번째 안건은 「**美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**」임

- 동 사안은 지난 10.7일 녹실회의에서도 1차 논의한 바 있으며,
오늘 회의에서는 ①국내외 업계, 미국 및 주요국 동향 진전사항을 점검하고
②정부간 협의 및 ③우리 기업과의 소통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

☞ 이에 대해서는 **기업의 자율성(민감정보 감안)+정부의 지원성(기업부담 완화)+
한미간 협력성 등에 바탕**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 특히 정부는 **기업계와의
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**해 나갈 것

□ 두 번째 안건은 「**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 기술 육성·보호전략**」임

- 同이슈는 기술·안보·산업·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.
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·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
핵심이슈로 부각

-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**촉진한 기술안전망 구축**이 시급
- 즉 ①기술블록화 가속화에 대비, 전략적 가치가 높은 **핵심기술의 선정·발굴**
②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·기술 보호체계 구축 ③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
공조강화 등이 핵심

☞ 오늘 논의를 토대로 부처간 협업 하에 추가 세부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

□ 세 번째 안건은 「**CPTPP 가입문제 관련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**」임

-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추진 대비, ①대내적으로 관련 제도정비를
추진해 왔으며 ②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옴
- 이에 오늘은 그간의 진행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①CPTPP 가입의 경제적·
전략적 가치 ②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요인 점검 ③향후 대응 및 추진일정
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 예정

(모두발언 여기까지임)